

# 농작물재해보험 현실성 결여 수두룩

### 전국 대상 품목 67개 중 제주 20개... 초당옥수수 빠져 피해보상 따른 보험료 할증·재난지원금은 수령 불가

제주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제한되고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5%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보험대상 품목은 67개 작물이다. 제주도 대상품목은 토마토와 딸기, 가지, 파, 상추, 풋고추 등 시설작물과 콩,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가을감자, 양파, 당근, 월동무 등 20개 품목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고소득 작물로 떠오른 초당옥수수는 대상 품목에서

배제됐다. 초당옥수수는 잘 옥수수에 비해 받아들여 낮고 초기생육이 불량하며 수분이 많아 재배가 까다롭고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보험손해율이 커질 수 있어 농업이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다. 도내 초당옥수수 재배면적은 2015년 20ha에서 올해 269ha로 확대 재배되고 있다.

또 보험료 할증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재난발생으로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콩의 경우 평년생산량이 80% 미만

일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어렵고 피해율이 20%를 초과한 만큼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제한되고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매년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그나마 조용한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보험금은 양배추 30억원, 브로콜리 26억원, 매밀 6억원, 가을감자 98억원, 당근 22억원이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2020 제주애 빠지다 ② 제주본초협동조합



제주본초협동조합의 주력상품인 왕지케 양조장에서 전통 누룩으로 만든 전통주이다. 서로 다른 업체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고 있다. 사진=제주본초협동조합 제공

### “마을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 2015년 서로 다른 5개 업체 모여 협동조합 구성 고산지역 농산물 활용... 전통주·화장품 등 판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마을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며 지역 알리기에 나선 협동조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본초협동조합은 2015년 전통주, 건강식품, 화장품, 농산물 유통, 마케팅 등 서로 방향이 다른 5개기업의 12개 조합원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기업이다.

본초협동조합은 조합내 업종이 다른 특성을 살려 각 조합원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췄다. 다양한 업종이 모여있다 보니 제주본초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통주, 마스크팩, 건강식품 등 여러 가지다.

이중 제주 왕지케 양조장에서 전통 누룩으로 만든 전통주가 주력제품이다. 특히 본초협동조합의 전통주 제조시설인 왕지케 양조장은 지난해 1월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K-웰니스 브랜드 대상'에서 6차산업 활성화에 공헌하고 마을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통주와 안주로 즐길 수 있는 흑돼지를 세트 구성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본초협동조합은 ‘마을과 함께

발전’이 신념으로 제품 원료 대부분을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주와 마스크팩에 사용되는 누룩, 레드비트를 동결건조한 건강식품 등 모두 마을에서 생산한 원료이다.

특히 고산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서 지역도 알리고 제품의 원료 등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본초협동조합은 마을주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에서 운영이 힘든 다목적회관 건물을 양조장, 전시장 등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 일부는 마을회에 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초협동조합의 운영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생산된 제품 등을 시장에 내놓아 판매하기까지 여러 애로사항을 겪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홍보 전개를 통해 현재 본초협동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등은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조원호 제주본초협동조합 이사는 “앞으로 소비자들께서 고산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조장을 방문해 시음도 하고, 제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마을과 함께 상생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 도, 물가대책상황실 가동 추석 대비 물가안정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성수품 및 생필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하는 등 추석 명절을 대비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역대 최저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명절 성수품 물가의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과일·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9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특별 관리하고, 도와 행정시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19개 품목은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귤, 단감, 양배추, 감자, 당근, 양파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수산물=옥돔, 갈치,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이다.

도는 도민에게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성수품과 생필품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과 협조해 과일·채소 중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품목의 평시 대비 공급량을 15~80%, 소와 돼지의 도축물량을 평시 대비 공급량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열린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추석 종합대책과 관련 “방역의 범위 내에서 소비증진과 경제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무 파종 현장의 구슬땀 15일 제주시 구좌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무 파종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양쯔강 저염분수 완전 소멸... 태풍 영향

### 도 해양수산연구원, 염분·수온 평년수준 회복 확인 제8·9호 태풍으로 인해 해수에 혼합돼 소멸한 듯

제주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 중국 양쯔강 저염분수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달 말 제주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 양쯔강 저염분수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호 태풍 ‘비비’와 지난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저

염분수가 해수의 상·하층에 혼합돼 소멸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9월 10일 제주 서부 30km 해역에서 현장관측을 실시한 결과 표층 염분은 30.8~31.1 psu, 표층 수온은 24.3~24.8℃의 분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중남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양쯔강 유출량이 초당 8만4000t에 달함에 따라

해양모델을 활용한 저염분수 유입 예측과 무인 해양관측장비(Wave Glider)를 활용해 광역예찰조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해양모델 예측자료에서 제주 남서쪽 250~300km 해역에 위치한 거대한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예찰조사를 강화한 바 있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28psu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수산생물의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해 폐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묘목 분양**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 보유묘목 ★

- 나쓰미(남진해)
- 세또까(천혜향)
- 감평
- 황금향
- 일남1호

**한라종묘**  
H.P.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행무늬,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종, 탐나는농, 사랑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번이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